

News

코로나에 1분기 가계소비지출 역대 최대폭 ↓ ...소득격차는 확대

연합뉴스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당 명목 소비지출은 월평균 287만8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0% 감소...감소폭은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년 전 대비 그대로였던 반면, 5분위 가구의 소득은 전 분위 중 가장 크게 늘면서 가계의 소득 격차는 확대...

커버드본드 '폭증 가계대출' 안전판되나

서울경제

은행마다 新예대출 상한 다다르자 예수금 확보 비상...커버드본드 자금도 예수금 1%까지 인정돼 발행 붐물...조달금리도 우호적..국민銀 2.1조 등 총 3.9조 발행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책 대응으로 채권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은행채 금리가 낮아져 조달금리도 우호적

기업銀, 라임펀드 투자금의 50% 첫 선지급 검토

파이낸셜뉴스

'라임사태' 해결을 위해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라임레포플러스 9M 펀드' 투자금의 50%를 선지급키로 가닥
선지급 규모는 환매 중단된 총 302억원의 50%인 151억원...나머지 은행들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유사하게 선지급 비율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져

자격 없이 투자 권유한 우리銀 직원들, 과태료 20억8000만원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 23개 영업점은 2018년 1월2일 ~ 2018년 6월 22일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 42명이 영업점내 파생상품투자권유 자문인력 사번을 이용해 701명의 고객에 ELS 등 특정금전신탁계약 860건(399억원)의 투자를 권유해 증징계...관경고와 과태료 20억8,000만원

재난지원금 실손보험으로 현금화? ...보험사 '속알이'

뉴스1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기 위해 동네병원에서 불필요한 도수치료 등을 받고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는 '암체족'이 생기면서 보험사들의 우려가 커져...
재난지원금 현금화 수단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활용돼 치솟고 있는 손해율이 한층 악화될 수 있다는 걱정...정부, 실손보험 청구를 통한 현금화를 "현금강으로 볼 수

절치부심 손보사들 새 먹거리 운전자보험에 전력질주 하나

뉴스투데이

국내 5대 손보사, 올해 4월까지 운전자보험 판매에 매진한 결과, 154만2,000건의 신계약을 체결...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보장하는 운전자 보험의 시장 가입 수요 3월부터 스킵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보장하는 운전자 보험의 시장 가입 수요가 늘어...

신탁총량제 지켜라 금융위 경고에 은행들 신규판매 중단

건설경제신문

금융위원회가 최근 시중은행 신탁 담당자를 한 자리에 모아서 총량 규제를 지키라고 경고한 것으로 확인...시중은행은 사실상 ELT 신규 판매를 중단하고 총량 관리
시중은행은 사실상 ELT 신규 판매를 중단... 조기상환이 가능한 ELT가 간혹 나오더라도 새로운 투자자를 모으는 건 포기한 상태

라임자산운용, 603억원 규모 환매 중단 펀드 1차 분배 실시

데일리안

라임자산운용은 오는 22일부터 5월 말까지 환매가 중단된 87개 자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약 603억원 규모의 1차 분배를 실시
2차 분배는 3분기 중에 진행할 계획... 라임 관계자, "구체적인 분배일정은 각 판매사를 통해 고객에게 안내될 것"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